

# 새싹편지 7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편지 2014년 7월호

##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 MLST특강

7월 7일 월요일 4시에 시작하여 5시까지, 우송 타워 4층에서 우송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게임멀티미디어학과의 1학년 학생과 MLST 특강을 들었다.

MLST는 학습전략검사로 학습에서의 심리적 특성, 학습동기, 학습습관 및 기술 등을 알아봄으로써 각각의 영역에 대한 해석 및 지도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전략에 따른 자신의 공부 법, 기준에 따른 시간 관리법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특강이었다.

MLST 검사 후, 결과 분석표에 따른 해설 방법을 특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수의 학생이 체계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얻어 가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전략 방법을 알아 갈 좋은 기회였다.



<1-1> 1학년 학생들은 시간 관리법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여 듣고 있다.

### 심폐소생술 특강



<1-2> 3학년 학생들은 심폐소생술을 선보이는 동기의 모습을 집중하여 보고 있다.

6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특강이 우송관 506호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특강 시간에는 강의와 동영상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심폐소생술 인형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배워 보았다. 두 번째 특강 시간에는 한 명씩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고, 이외에도 화상이나 골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유치원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도 알아보았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유치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전공심화 트랙인 원예 수업을 듣다

7월 7일부터 3시에 우송관 504호에서 유아교육과 2학년의 전공심화 트랙인 원예 수업이 진행되었다. ‘직접 체험해 보아야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 라는 교수님의 철학에 따라 실제로 과일의 당도를 측정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 수업에서는 과일 당도 측정기를 가져와서 두 사람씩 앞으로 나와 시험법을 익히고 직접 당도를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과일의 당도가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과일의 당도를 재어 볼 수 있어 더 관심을 가지며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였다. 당도를 측정해 본 결과, 이날 체리는 19.1, 수박은 18.6, 오이는 9.6, 참외는 18.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은 과일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함께 들으면서 어떤 것이 당도가 높고 싱싱한 과일인가에 관련된 지식도 얻을 수 있었다. 수박은 껍질의 줄무늬가 선명하고 매끈하며 꽃자루가 싱싱할수록 당도가 높고, 오이는 위아래의 끝 부분이 중간과 색깔이 비슷한 것이 햇볕을 잘 받아 고르게 익은 것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다. 대부분 과일은 꼭지가 가장 중요하며 꼭지로도 유통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꼭지가 싱싱하다면 대개 2~3일 이내이고, 꼭지가 말라서 비틀어져 있다면 맛도 덜할뿐더러 유통시간이 길어서 싱싱하지 않다.

담당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전공 심화로 원예수업을 듣고 난 학생들이 앞으로 유치원이나 가정에서의 생활에서 필요한 과채류가 어떤 것이 싱싱한 것인지 알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번 특강을 마무리하셨다.

선배님들께 전해듣기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예특강을 특강으로 진행하여 들었다고 한다. 올해부터 유아교육과 전공심화 트랙이 개설되었으며, 더불어 이 강의를 유아교육과 전공심화 트랙에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공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원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원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 소중한 튜터-튜티의 만남



1학년 문자영 학생

선-후배가 협동하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이 지금 저의 대학생활의 꽃입니다. 처음으로 선배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스러움과 부담감을 안고 첫 튜터링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의 걱정스러운 마음과 달리, 튜터링 프로그램은 선배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과 선배님이 선배님만의 비법으로 튜터링을 해주시는 것이 전공수업을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기 시간관리 부분에서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공부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튜터링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아낌없는 칭찬과 용기를 부여하시는 선배님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뼉 더 성장하는 제가 있기에 저는 튜터링 프로그램이 참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튜터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함께 협동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All Children 튜터링 화이팅!



1학년 송휘연 학생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번 튜터링 활동을 통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내용도 선배님께 많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려웠던 선배님과 매주 만나 같이 공부하면서 더 친해지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로와 전공 과정에 대해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고, 튜터링의 원래 목적에 맞게 과목에서 어려운 부분들도 배우면서 예전 같았으면 무의미하게 보냈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튜터링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배워나가고 선배님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혜나눔 프로젝트

### 산전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 제왕 절개 비율은 37.5%로 미국(29.1%), 영국(22%), 스웨덴(15.4%) 과 같은 선진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사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부족한 출산 지식으로 인한 출산 진통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걱정이라고 한다.

이에 원인을 줄여주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산전교육에 있다. 산전교육이란 잘못된 출산 상식에 대한 교육과 산모의 불안을 잡아주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 후 아이를 위해 산모가 준비하는 교육이다. 산전교육을 통해 출산의 과정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진통시간을 줄이고 힘을 들이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다. 산전교육의 한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산모는 분만 전 1~2달을 걸쳐 산전교육을 받으며 한 가지 곡을 정하여 출산 시 그 곡을 부르게 하여 산모의 긴장을 풀어주어 아이를 원만히 자연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나라는 산전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발한 산전교육이 필요하며 충분한 산전교육을 통해 산모는 첫 탄생의 기쁨을 보다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간단한 유아체육

놀이 기구나 시설이 필요한 체육 활동은 유치원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체육활동으로 유아의 대근육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개한 활동은 전공심화트랙 유아체육수업을 진행하신 이흥복 교수님의 조언을 참고한 활동들이다.



<3-1> 어려운 동작은 사진을 참고하여 활동해보도록 한다.

이 활동은 실내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모님과 짝을 이루어 하는 활동이다. 손을 마주 잡고 다리를 벌리고 오므리는 동작을 10회 정도 한다. 그 다음 손을 마주 잡고 부모님이 다리를 벌리면 유아가 그 사이로 다리를 뺏으면서 쏜다. 다음은 엄마가 다리를 넓게 벌려주고, 유아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동작이다. 다리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상황 설정을 하면 유아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다음은 유아가 11자로 다리를 모으고 앉고, 엄마가 두 발로 동시에 뛰며 유아의 다리를 넘어간다. 뛸 때는 반드시 두 발로 동시에 뛰는 것이 발달에 더 적합하고 다리에 걸릴 위험이 적어 안전하다. 같은 동작을 뒤로도 뛰어본다. 다음은 엄마가 다리를 벌리고 앉고, 유아가 두 발 뛰기로 한 다리씩 넘어간다. 같은 동작을 뒤로도 뛰어본다. 이 활동은 유아가 점프하는 것을 익숙해지게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유아체육활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놀이시설이나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아가 필요한 능력을 가정에서도 발달시키며 유아와 부모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안정감 있는 애착형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우송유치원 소식

### 물놀이 활동과 여름캠프



〈4-1〉 유아들은 물놀이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과학 지식을 접하고 있다.

7월은 여름이라는 생활주제에 맞게 주로 물놀이 활동을 하였다. 그중 물놀이를 하면서 물에 뜨는 것, 뜨지 않는 것과 같은 물에 관련된 과학 활동을 가장 많이 하였다. 7월 14일에는 만 4, 5세 유아들이 솔브릿지 국제대학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를 하였다. 사전 활동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유아 스스로 약속을 정해 보았다. 유아들 유아들이 즐겁게 유치원에서만 물놀이하다가 수영장을 가니 매우 즐거워하였다. 7월 23일에 종업식을 하고, 24일

에는 만 4,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여름 캠프를 하였다. 두 연령이 섞여 함께 조가 되어 조 이름과 구호 등을 정하고 오후에는 캠퍼스 추적놀이를 하여 미션을 성공하면 선물을 주었고, 캠프파이어 시간에는 조별로 준비한 장기자랑을 하였다. 유아들은 하루종일 유치원에서 형, 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어울려 지내면서 사회성을 키우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을 가졌다.

### 부모교육



〈4-2〉 학부모님들은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우송유치원에서 6월 24일부터 7월 1일, 4일, 25일 네 차례에 걸쳐 우송대학교와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성원경 교수님, 이성희 교수님, 김현지 교수님께서 참석하셨다. 학부모님들과 유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보고, 육아와 교육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부모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쌓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학부모님들께 반응이 매우 좋았다.

###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지윤 박명옥 김유리

김예솔 손혜원 박지원

강현아 김수민 김지송 김지예

유현영 박민영 박상옥 심영선

황세희 이가은 최효정 윤혜령

